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 개발*

양태연(梁太妍)**
손지유(孫志侑)***
한기순(韓起順)****
박인호(朴仁皓)*****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영재아들의 다양한 심리환경적 요인 중에 어떠한 요인의 상담이 필요한지를 진단하기 위한 영재상담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 영재아 120명과 중등 영재아 1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설문과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103문항의 예비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1개요인 총 46문항을 추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1419.685$ ($df=882$, $p=.00$), TLI=.911, CFI=.924, RMSEA=.046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역시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68, 형제자매와의 관계 .76,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85, 영재성 및 영재교육 .83, 이성친구 .70, 친구관계 .83, 진로문제 .86, 학교부적응 .74,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82, 성적 및 학업 .90,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86으로 나타나 개발된 척도가 영재들의 상담을 위한 진단 도구로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검사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초/중등 영재들의 개인 심리환경적 상담 및 진로/학업 상담을 돕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영재, 영재상담, 상담진단, 상담 검사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4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시간강사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우수한 인력은 국가의 자원이자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타고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재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영재 관별, 영재 프로그램 개발, 영재 교수법 등 다양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영재교육을 살펴보면 교육이나 연구에서 대부분 영재들의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을 뿐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간과해왔다(류은주, 김정은, 백성혜, 2011; 민경해, 2006; 이승주, 2010; 정순이, 2010; 허난설, 2009; 홍종관, 2009). 그 결과 영재들은 학교나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영재상담에 대한 Terman(1925) 연구를 살펴보면 영재들은 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신체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지도가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Holahand와 Sears(1995)는 Terman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연구 대상들이 좋은 환경과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백인 중산층의 영재들이었다는 것이다(Colangelo, 2002). 영재의 정서적 특성을 연구한 Hollingworth(1926, 1942) 또한 영재들이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 사이에 불균형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영재들의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영재들이 겪고 있는 사회 정서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서우경, 2004; 이지연, 2010; 최은선, 2004; 한기순, 신정아 2007), 특히, 우리나라 영재들은 영재교육에서 정서적 발달 측면의 간과로 인해 영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남에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홍종관, 2009). 또한 천성문(2009)에 따르면 영재들이 발달 측면이나 사회적 정서적으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 일 수 있으며, 잘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영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재 상담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국내 영재 상담 요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재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도 영재 상담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으며(윤연홍, 2011; 이승주, 2010; 지세영, 2006), 그들은 상담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잘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영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영재들을 위한 상담이 절실하다(정현남, 김동현, 고병오, 2004). 다시 말해,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영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줄 상담이 필요한데, 일반 학교 현장에서 수업내용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문

제, 또래 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 또한 정서적 안정이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있어 영재들이 일반아동과 다른 발달 특성으로 인하여 그에 맞는 특별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유형근, 2009; 정순이, 2010; Colangelo, 1991, 2002; Silverman, 1991). 윤여홍(2000)의 연구에서도 영재들은 완벽주의, 비동시적 성장에 따른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불균형, 과도한 자기비판 성향, 정서적 민감성, 과흥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래 친구들과 사귀기 어렵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지 않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거나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재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아동과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와 직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상담을 실시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영재들은 그들만의 특성에 대한 도전들과 외적 환경과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노력하기에 그들에게 맞는 상담을 위해선 상담자들은 그들의 독특한 요구와 문제점을 잘 진단하고 파악할 할 필요가 있다(유형근, 2009; 윤연홍, 2011; Colangelo & Assouline, 2000; Reid & McGuire, 1995). 다시 말해, 영재 상담에 앞서 어떤 부분에서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재 상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재들이 일반아동과 다른 발달 특성으로 인하여 영재들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고 영재들 뿐 아니라 부모까지 상담 요구가 있다는 것에만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류은주, 김정은, 백성혜, 2011; 민경혜, 2006; 이승주, 2010; 정순이, 2010; 태진미, 2014; 허난설, 2009; 홍종관, 2009), 기존의 영재 상담 연구에서도 영재 상담의 실질적인 검사 도구나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보다는 영재 상담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은주, 김정은, 백성혜(2011)의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사회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유형근(2009)은 미성취 영재의 상담 요구와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윤연홍(2011)과 이승주(2010)는 초등 영재의 상담 실태 및 요구 분석에 대하여, 지세영(2006)은 초등 영재 학부모의 상담요구 분석, 그리고 태진미(2014) 연구에서는 초중등 영재들이 지각하는 상담 실태 및 요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영재 상담이 필요한 영재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상담이 필요한 개개인의 영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영재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영재들이 필요한 상담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재 상담 진단 도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재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영재만의 특성으로 인해 어떠한 갈등이나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과 상담 요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탐색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정서적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설문지를 실시하고 실증적 조사/분석을 통하여, 실제 영재들이 진술하고 응답한 상담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여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등 영재아 2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75.3%, 여학생이 24.7%이었으며 학령은 초등학생이 120명으로 41.7%이었으며 중학생이 168명으로 58.3%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령	학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초등	초4	1	0	1	120
	초5	44	13	57	(41.7%)
	초6	50	11	61	
중등	중1	65	32	97	168
	중2	57	15	72	(58.3%)
전체		217 (75.3%)	71 (24.7%)	288	(100%)

2. 연구 절차

본 영재 상담 진단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작업은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김기현, 2012; 유형근, 2009; 윤여홍, 2000; 이승주, 2010; 지세영, 2006; 홍종관, 2006; Peterson, 2006; Silverman, 1993; Webb, 1993)을 통하여 영재의 특성 및 영재 상담과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고, 초·중등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현

재 학생들의 고민유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103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한 뒤, 영재교육전문가 3인과 영재전공 박사 1인의 내용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을 최종선정하기 위하여 수집된 결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 척도별로 문항-총점간 상관을 검토하여 양호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검토하여 극단값을 제거하였고, 기술통계치 검토를 통해 정규분포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편포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 보고,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배병렬, 2009), 이 연구의 표본에서는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항-하위 척도별 총점 간 상관을 구하여 상관이 낮게 나오거나 역상관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항 총점간 상관이 .40이상이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주화, 김아영, 2005), 모든 문항에서 .40이상을 보여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는데 양호한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를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선정된 문항의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분석과 varimax 방식의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 기준은 고유치가 1 이상이거나 누적분산 비율이 75-85%가 되는 지점, 스크리 도표와 해석 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요인 수를 11개로 보았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내용은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영재성 및 영재교육, 이성친구, 친구관계,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성적 및 학업,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요인 수를 11개로 결정한 후에는 요인에 대한 계수 값이 높은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내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내용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46문항의 5단계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표 2> 참조). 각 문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상황이나 갈등상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진 영재 상담 진단 검사도구가 11개의 요인 구조로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CFI, TLI, RMSEA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표 2> 최종 초/중등 영재상담 진단검사 하위요인 및 문항내용

요인	하위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 부모님 간 관계 및 갈등 - 자녀-부모와의 관계 및 갈등	1,2,3	3
형제자매와의 관계	- 형제자매와의 관계 및 갈등	4,5	2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 학업의 과중으로 인한 피곤함과 시간적 여유 부족	4,7,8,9,10	5
영재성 및 영재교육	- 본인의 영재성에 대한 고민 - 영재교육 수업과 관련된 문제	11,12,13,14	4
이성친구	- 이성친구 문제	15,16	2
친구관계	- 친구관계에서의 문제	17,18,19,20,21,22	6
진로문제	- 진로의 불확실성 - 진로결정에서의 갈등	23,24,25,26,27,28	6
학교부적응	-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	29,30	2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에서의 수업 및 교사와의 갈등 - 학교생활 만족도	31,32,33,34	4
성적 및 학업	- 성적에 대한 불안감 - 학업에 대한 버거움	35,36,37,38,39,40,41	7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 학원수업으로 인한 부담감 - 학원에 대한 거부감	42,43,44,45,46	5
전체문항수			46

III. 연구결과

1.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 문항 선정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 문항 선정을 위해 먼저,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영재의 특성 및 영재상담과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영재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정순이(2010)와 이승주(2010) 연구에서는 ‘가족 문제’, ‘성격 문제’, ‘학교성적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진로 문제’, ‘이상한 행동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성 문제’, ‘생활습관 태도 문제’, ‘학습 문제’로 분류 하였으며, 김기현(2012)은 윤여홍(2000)이 제시한 영재 특성을 바탕으로 영재 상담을 크게 영재의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특성에는 ‘높은 지적 호기심’, ‘높은 창의성’ 등으로 정의적 특성에는 ‘다재다능함’, ‘완벽주의와 자기비판’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태진미(2014) 연구에서는 영재 유형별 고민을 ‘가족문제’, ‘영재성 관련 문제’, ‘학교성적 및 학업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진로 문제', '본인의 이상한 행동 관련 문제', '대인 및 친구관계 문제', '이성문제', '생활습관 및 생활태도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로 총 10개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문제'를 '부모관계'와 '형제자매 관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대인 관계 문제'는 '친구 관계', '이성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교 문제'는 '학교 부적응'과 '학교 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로, '개인 문제'에는 '건강', '성격', '학업 과중 및 시간부족' 등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문항에서는 '학업 과중 및 시간부족'에 대한 문항만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재들만의 고민인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영재 상담 유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선행연구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영재 상담 유형이 일반아 상담 유형과 몇 가지만 다를 뿐 상담 유형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영재들도 같은 또래의 일반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들이 겪는 가족, 친구, 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 및 문제를 겪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숙, 윤여홍, 2001). 그러나 상담 유형과 달리 구체적인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영재들만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선 '학교 수업 시간이 지루하다', '친구관계'에선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이다', '친구들은 나를 잘난 척 하는 아이로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서 우수한 인적 능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비동시적 발달로 인한 친구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의 고민들을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초·중등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여 영재들의 고민 유형 및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 분석한 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고민들 중 초등과 중등의 고민이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설문 문항의 경우, 예를 들어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없다',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등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제시하는 문항은 하나의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재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특성으로 기존 연구(김기현, 2012; 성희경, 한기순, 2012)에서는 제시되었으나 설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따돌림 당할까 고민이다'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는 총 103개의 예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영재 상담 진단 도구의 예비 문항

요인	문항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1 우리 가족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집에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3 우리집 경제형편 때문에 고민이다
	4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고민이다
	5 부모님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신다
	6 부모님이 나의 일에 많은 간섭을 하신다
	7 부모님이 나의 일에 무관심하다
	8 부모님 간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다
	9 부모님이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하여 갈등이 있다
	10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11 형제자매와 내가 비교되어 속상하다
	12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다
	13 형제자매와 자주 다툰다
	14 나는 몸이 약해서 고민이다
개인문제	15 나는 요즘 계속 피곤하다
	16 나는 해야할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17 나는 해야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18 나는 게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19 나는 학생으로서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음주, 담배 등)을 한 적이 있다
	20 나는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21 실재는 아닌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걱정이다
	22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23 나는 현재 행복하다
	24 나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피곤하다
	25 내 성격을 바꿨으면 좋겠다
	26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27 나는 잠자는 시간(수면시간)이 부족하다
	28 나는 많은 학업 때문에 휴식 및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
	29 나는 내가 진짜 영재인지 모르겠다
	30 나는 내가 영재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담스럽다
	31 나는 어떤 일에 실수 할까봐 항상 조심스럽다
	32 나는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싫다
	33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시작하기가 어렵다
34 나는 나의 외모(키, 얼굴, 몸매 등)에 자신이 없다	
35 나는 용돈이 부족하다	
36 나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7 나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8 나는 요즘 나의 존재감(나의 대한 생각)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	
39 나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40 나는 외부로부터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41 나는 나가야할 외부시험/경시대회 등이 많아 부담스럽다	
42 나는 외부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서 부담스럽다	
43 경시대회 시험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요인		문항
교사와의 관계	44	나는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45	나는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
	46	나는 학원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이성친구	47	나는 이성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48	이성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49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이다
친구관계	50	나는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나의 능력을 숨기려고 한다
	51	친구들은 나를 잘난척 하는 아이로 생각한다
	52	나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고민이다
	53	친구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54	나는 학교 친구들과 이질감(생각의 차이)이 느껴진다
	55	학교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56	따돌림 받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57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이다
	58	나는 친한 친구와 떨어져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59	나는 친구들의 기대감이 부담스럽다
	60	나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진로문제	61	나는 말이 통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62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달라서 고민이다
	63	나의 미래(진학, 진로, 직업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64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65	나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싶다
	66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67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개 있어서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
	68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학교부적응	69	학교에 가기 싫다
	70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71	학교에서 임원(회장, 부회장 등)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다
	72	학교에서의 전반적 만족도가 떨어진다
	73	학교 선생님이 차별을 하신다
	74	학교 선생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75	학교숙제가 많아 고민이다
	76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더 똑똑해지고 싶다)
	77	학교 교과목 중 주요과목(국,영,수,사,과)외에 다른 교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
	78	학교 성적이 고민이다
	79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80	공부시간이 부족하다
성적및학업	81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다
	82	공부하는게 버겁다
	83	공부할 때 집중이 안된다
	84	스스로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85	나만의 공부방법을 터득하고 싶다
	86	학교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
	87	학교 수업시간이 지루하다.
	88	학교 수행평가가 고민이다
	89	시험에 대해 고민이다
	90	시험을 볼때 불안하다

요인	문항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91 학원숙제가 많아 힘들다
	92 학원 선생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93 사교육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94 학원 수업이 어렵다
	95 학원 수업이 지루하다
	96 학원을 많이 다녀서 힘들다
	97 학원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98 학원을 다니기 싫다
	99 학원을 다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재성 및 영재교육	100 영재교육원 과제가 많아 힘들다
	101 영재교육원 수업이 어려워 고민이다
	102 영재교육원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103 영재교육원 친구들에게 종종 열등감을 느낀다

2.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 문항분석 및 내적 합치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먼저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1.25~3.26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 진로문제나 학교 적응,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 등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에서는 극단 값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규분포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편포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68, 형제자매와의 관계 .76,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85, 영재성 및 영재교육 .83, 이성친구 .70, 친구관계 .83, 진로문제 .86, 학교부적응 .74,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82, 성적 및 학업 .90,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86으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 는 .95이었다.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68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반 구조화된 설문을 통하여 영재들의 고민유형과 상담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영재들이 가족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재상담 진단 시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되어 최종 검사지에 포함시켰다.

각 하위요인에 포함된 개개문항과 해당 하위척도 총점과의 관련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총점간 상관은 모두 .40 이상을 보여 각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양호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 등 영재상담 진단 검사도구의 문항에 대한 양호도 및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검사도구 문항별 기술통계치 및 내적 합치도(N=288)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하위 척도 총점간 상관	문항 제거시 α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68
문항1	부모님이 나의 일에 무관심하다	1.31	0.63	.70	.57
문항2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고민이다	1.36	0.70	.78	.46
문항3	부모님이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하여 갈등이 있다	1.55	0.98	.83	.60
형제자매와의 관계					.76
문항4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다	1.46	0.86	.87	
문항5	나는 형제자매와 자주 다툰다	1.76	1.11	.92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85
문항6	나는 요즘 계속 피곤하다	2.58	1.36	.78	.83
문항7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2.3	1.28	.85	.80
문항8	나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2.33	1.31	.79	.82
문항9	나는 잠자는 시간(수면시간)이 부족하다	2.07	1.22	.76	.83
문항10	나는 많은 학업 때문에 휴식 및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	2.04	1.20	.78	.82
영재성 및 영재교육					.83
문항11	나는 내가 진짜 영재인지 모르겠다	2.32	1.18	.84	.75
문항12	나는 내가 영재라고 불리우는 것이 부담스럽다	2.3	1.22	.82	.77
문항13	영재교육원 수업이 어려워 고민이다	2.03	1.25	.79	.79
문항14	영재교육원 친구들에게 종종 열등감을 느낀다	2.07	1.26	.79	.80
이성친구					.70
문항15	나는 이성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1.6	1.06	.83	
문항16	이성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2.17	1.32	.90	
친구관계					.83
문항17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고민이다	1.59	0.96	.77	.78
문항18	나는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나의 능력을 숨기려고 한다	1.67	1.02	.75	.79
문항19	친구들은 나를 잘난 척 하는 아이로 생각한다	1.73	1.04	.75	.79
문항20	나는 학교 친구들과 이질감(생각의 차이)이 느껴진다	2.08	1.29	.78	.79
문항21	학교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1.31	0.71	.68	.80
문항22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이다	1.78	1.14	.68	.81
진로문제					.86
문항23	나의 미래(진학, 진로, 직업 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2.1	1.34	.82	.82
문항24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2.35	1.43	.85	.81
문항25	나의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싶다	3.26	1.61	.69	.86
문항26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2.01	1.28	.76	.83
문항27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개 있어서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다	2.64	1.48	.77	.83
문항28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2.06	1.27	.73	.84
학교부적응					.74
문항29	학교에 가기 싫다	1.56	1.04	.94	
문항30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1.25	0.65	.83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하위 척도 총점간 상관	문항 제거시 α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82
문항31	학교에서의 전반적 만족도가 떨어진다	1.66	1.07	.77	.80
문항32	학교 선생님이 차별을 하신다	1.6	1.10	.77	.80
문항33	학교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	1.88	1.22	.85	.75
문항34	학교 수업시간이 지루하다	1.84	1.20	.84	.75
성적 및 학업					.90
문항35	실제는 아닌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걱정이다	2.29	1.42	.73	.90
문항36	학교 교과목 중 주요과목(국,영,수,사,과)외에 다른 교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다	1.86	1.28	.70	.90
문항37	학교 성적이 고민이다	1.95	1.33	.83	.88
문항38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2.23	1.46	.87	.88
문항39	학교 수행평가가 고민이다	2.13	1.42	.79	.89
문항40	학교 시험에 대해 고민이다	2.23	1.48	.88	.88
문항41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불안하다	2.1	1.37	.76	.89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86
문항42	학원 수업이 지루하다	1.53	0.95	.72	.85
문항43	학원을 많이 다녀서 힘들다	1.4	0.83	.82	.81
문항44	학원에서 적응하기 힘들다	1.29	0.75	.84	.81
문항45	학원을 다니기 싫다	1.7	1.12	.84	.82
문항46	학원을 다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4	0.90	.80	.82

3.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이 검사도구의 요인분석 모형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MO의 표준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한 결과, SPSS에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값은 .9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임계치 .8 이상을 보여주었으며, Bartlett의 유의도 검증 또한 유의수준 $p=.000$ 으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좋은 자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KMO의 표준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2	df	Sig.
.90	7673.441	1035	.000

영재 상담 진단 검사도구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므로 최종 46문항에 대한 반응 자료를 요인수를 11개로 지정하고 주성분분석 방법과 직각회전을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적

으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고유치는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고유치는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통분의 크기는 .49~.83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원래 의도한 하위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재 상담 진단 검사도구를 구성하는 11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률은 약 68.09%로 나타났다. 따라서 11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영재 상담 진단 검사도구가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각 문항의 전체 요인부하량은 .46~.89로 나타났다. 1요인 성적 및 학업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과 학업에 대한 버거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요인부하량은 .46~.82로 전체변량의 9.15%를 설명하고 있다. 2요인 진로문제는 진로의 불확실성 및 진로결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3~.73으로 전체변량의 7.99%를 설명하고 있으며, 3요인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은 학원수업으로 인한 부담감 및 학원자체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4~.83으로 전체변량의 7.77%를 설명하고 있다. 4요인 친구관계는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7~.71로 전체변량의 7.65%를 설명하고 있으며, 5요인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은 학업의 과중으로 인한 피곤함과 시간적 여유 부족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6~.74로 전체변량의 7.30%를 설명하고 있다. 6요인 영재성 및 영재교육은 본인의 영재성 및 영재교육 수업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9~.79로 전체변량의 6.56%를 설명하고 있으며, 7요인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교사와의 갈등이나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8~.69로 전체변량의 5.72%를 설명하고 있다. 8요인 학교부적응은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74로 전체변량의 4.31%를 설명하고 있으며, 9요인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은 부모님 간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갈등에 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56~.78로 전체변량의 4.20%를 설명하고 있다. 10요인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및 갈등에 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75~.89로 전체변량의 3.82%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1요인 이성친구는 이성친구와의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78~.79로 전체변량의 3.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검사도구의 문항 요인분석 결과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8요인	9요인	10요인	11요인	공통분
문항37	.82	.19	.15	.07	.11	.08	.08	.14	.10	.06	.06	.80
문항38	.74	.30	.10	.13	.19	.19	.19	.01	-.01	.02	-.06	.78
문항40	.72	.24	.09	.10	.17	.22	.33	-.04	-.02	.09	.08	.80
문항36	.71	-.02	.19	.20	.08	.06	.02	.21	.15	.03	.08	.67
문항39	.63	.26	.08	-.01	.12	.16	.37	-.07	.08	.08	.21	.71
문항41	.53	.27	.18	.20	.20	.25	.19	-.02	.04	-.03	.03	.57
문항35	.46	.37	-.02	.25	.33	.29	.01	-.01	.05	.11	-.05	.62
문항24	.15	.73	.06	.12	.19	.27	.11	.06	.09	.04	.02	.71
문항27	.11	.71	.05	.26	.20	.13	.11	.06	-.07	.03	.02	.66
문항25	.17	.68	-.08	.09	.02	.05	.07	-.02	.07	.05	.12	.54
문항23	.23	.66	.12	.19	.20	.28	.12	.03	.04	.03	.10	.69
문항28	.22	.56	.30	.05	.23	.18	.06	.15	.12	.15	.09	.61
문항26	.29	.53	.06	.02	.17	.36	.05	.30	.18	-.04	.08	.67
문항44	.06	.00	.83	.13	.14	.02	-.03	.22	.10	.10	.00	.80
문항43	.10	.12	.83	.07	.21	-.02	-.02	.16	-.01	.09	-.03	.80
문항45	.11	.05	.75	.12	.06	.15	.26	-.06	.05	.00	.03	.69
문항46	.20	.00	.70	.26	-.05	.09	.25	.00	.15	.04	.06	.70
문항42	.19	.01	.54	-.03	.17	.28	.19	.19	.22	.03	.14	.57
문항19	.05	.06	-.01	.71	.21	.00	.10	.12	.00	.12	.20	.63
문항17	.07	.21	.11	.66	.09	.01	.19	.20	.26	-.07	.13	.68
문항20	.19	.29	.08	.66	.07	.09	.16	.10	-.07	.08	.05	.63
문항18	.21	.13	.29	.61	.26	.08	-.03	-.05	.15	-.04	.17	.65
문항21	.07	.00	.11	.59	.11	.04	.14	.43	.16	.04	.07	.62
문항22	.11	.14	.20	.57	.12	.23	.08	-.03	.06	.09	.00	.49
문항7	.15	.14	.13	.15	.74	.21	.18	.07	.06	.05	.15	.73
문항8	.09	.21	.08	.20	.71	.05	.19	-.05	.06	.15	-.04	.68
문항10	.17	.19	.32	.04	.70	.10	.16	.06	.04	.06	.01	.70
문항9	.15	.17	.11	.18	.67	.05	.00	.15	.14	-.06	.17	.62
문항6	.29	.11	-.05	.30	.56	.15	.16	.19	.01	.15	.17	.64
문항12	.08	.22	-.01	.08	.10	.79	.17	.09	.13	.00	-.06	.75
문항11	.25	.24	.05	.04	.15	.76	.16	.16	.07	-.04	-.02	.78
문항13	.14	.15	.20	.03	.07	.70	-.06	.04	.10	.07	.16	.62
문항14	.25	.24	.13	.29	.09	.59	-.06	-.02	-.02	.18	.09	.62
문항32	.14	.11	.13	.06	.09	.08	.69	.25	.03	.10	.12	.63
문항34	.28	.12	.21	.15	.22	.19	.67	.09	.10	.00	.09	.73
문항33	.32	.11	.19	.26	.22	-.06	.66	.02	.06	.02	-.02	.71
문항31	.13	.18	.07	.28	.20	.03	.58	.33	.16	.14	-.13	.67
문항30	.06	.04	.20	.28	-.01	.10	.20	.74	.03	.07	.01	.73
문항29	.09	.14	.15	.08	.19	.13	.16	.74	.09	.05	.08	.70
문항1	.02	.06	.15	.03	-.04	.17	.06	.11	.78	.01	.04	.68
문항2	.13	.04	.09	.11	.26	.03	.04	.09	.71	.23	-.09	.69
문항3	.10	.13	.08	.21	.09	.07	.13	-.05	.56	.26	.18	.53
문항5	.06	.09	.00	.06	.08	.05	.07	.04	.12	.89	.06	.83
문항4	.08	.06	.22	.10	.11	.06	.08	.09	.22	.75	.03	.71
문항15	.07	.11	-.01	.23	.07	.10	-.03	.09	-.01	.17	.79	.75
문항16	.10	.13	.11	.15	.17	.00	.13	.00	.10	-.07	.78	.73
고유값	4.21	3.68	3.57	3.52	3.36	3.02	2.63	1.98	1.93	1.76	1.67	31.32
설명분산	9.15	7.99	7.77	7.65	7.30	6.56	5.72	4.31	4.20	3.82	3.62	
누적분산	9.15	17.14	24.91	32.57	39.87	46.43	52.15	56.45	6.65	64.47	68.09	

4.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 요인의 평균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하위요인 간 상관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부모님관계 및 부모와의갈등	1									
2 형제자매와의관계	.40**	1								
3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36**	.29**	1							
4 영재성및영재교육	.31**	.21**	.42**	1						
5 이성친구	.23**	.17**	.35**	.23**	1					
6 친구관계	.38**	.26**	.55**	.38**	.41**	1				
7 진로문제	.32**	.25**	.56**	.61**	.32**	.51**	1			
8 학교부적응	.30**	.19**	.38**	.31**	.21**	.42**	.35**	1		
9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만족도	.35**	.27**	.54**	.35**	.25**	.52**	.46**	.48**	1	
10 성적및학업	.33**	.25**	.57**	.55**	.30**	.49**	.64**	.32**	.59**	1
11 학원에대한부담감 및거부감	.35**	.24**	.40**	.34**	.21**	.42**	.32**	.40**	.47**	.42**

* $p < .05$, ** $p < .01$.

이론적 배경과 영재학생들의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모형의 변인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적합도를 살펴봄으로써 요인의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개 요인의 46개 문항을 개발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은 표본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자료에 잘 부합될 뿐 아니라 동시에 모형의 간명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민감하고 표본크기가 클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데 참고하는 정도만 사용하였고,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모형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1419.685$ ($df=882$, $p=.00$), $TLI=.911$, $CFI=.924$, $RMSEA=.046$ 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중등 영재상담 진단 검사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표 8> 검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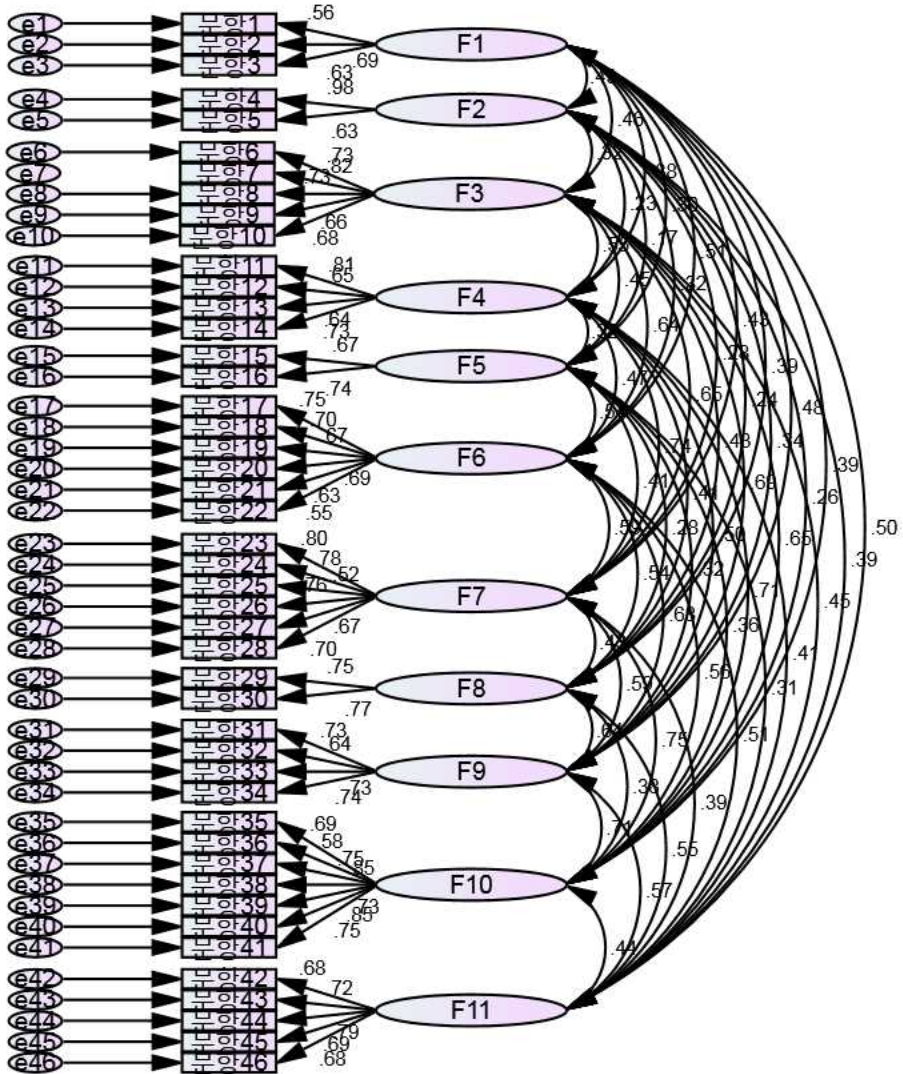
	χ^2	<i>df</i>	<i>TLI</i>	<i>CFI</i>	<i>RMSEA</i> (90%신뢰구간)
검증모형	1419.685	882	.911	.924	.046 (.042 - .050)

<표 9> 검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F1 문항1	1.00	.56		
	문항2	1.36	.69	.19	7.23***
	문항3	1.75	.63	.25	7.03***
형제자매와의 관계	F2 문항4	1.00	.98		
	문항5	.83	.63	.13	6.29***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F3 문항6	1.00	.73		
	문항7	1.05	.82	.08	13.27***
	문항8	.96	.73	.08	11.90***
	문항9	.81	.67	.08	1.73***
영재성 및 영재교육	문항10	.80	.68	.07	11.10***
	F4 문항11	1.00	.81		
	문항12	.84	.65	.06	13.97***
	문항13	.85	.64	.09	9.51***
이성친구	문항14	.99	.73	.10	1.17***
	F5 문항15	1.00	.67		
친구관계	문항16	1.38	.74	.21	6.52***
	F6 문항17	1.00	.75		
	문항18	1.00	.70	.09	11.60***
	문항19	.99	.67	.09	1.96***
	문항20	1.25	.69	.11	11.18***
	문항21	.63	.63	.06	1.41***
	문항22	.88	.55	.10	8.92***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진로문제	F7 문항23	1.00	.81		
	문항24	1.03	.78	.06	17.01***
	문항25	.78	.52	.09	8.68***
	문항26	.91	.76	.07	13.74***
	문항27	.93	.67	.08	11.76***
	문항28	.83	.70	.07	12.47***
학교부적응	F8 문항29	1.00	.75		
	문항30	.63	.77	.07	9.58***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F9 문항31	1.00	.73		
	문항32	.90	.64	.09	1.03***
	문항33	1.13	.73	.10	11.20***
	문항34	1.12	.74	.10	11.36***
성적 및 학업	F10 문항35	1.00	.69		
	문항36	.77	.58	.08	9.38***
	문항37	1.00	.75	.08	11.93***
	문항38	1.26	.85	.10	13.37***
	문항39	1.06	.73	.09	11.62***
	문항40	1.27	.85	.10	13.43***
	문항41	1.05	.75	.09	11.98***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F11 문항42	1.00	.68		
	문항43	.92	.72	.09	1.19***
	문항44	.91	.79	.08	1.80***
	문항45	1.19	.69	.12	9.88***
	문항46	.93	.68	.10	9.7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초/중등 영재상담 진단 검사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들의 심리적 정서를 좀 더 깊숙이 이해하고, 영재상담의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영재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분석함으로써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는 최종 11개 하위요인과 46문항이 도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가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검사는 인천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 영재아 120명과 중등 영재아 168명 대상으로 영재 상담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영재 상담 진단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68-.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의 α 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1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4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모든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하위요인에 밀접히 부합되었으며, 해당 요인과 .4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고 있으며 누적변량도 68.09%로 양호하였다. 또한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의 타당화를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χ^2 , TLI, CFI, RMSEA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 배경과 영재학생들의 반구조화된 설문을 바탕으로 성립된 본 연구 모형은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 영재상담 진단 검사의 하위요인들의 설정이 제대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가 영재들이 필요한 상담이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도구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영재아들을 위한 영재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만 주로 해왔을 뿐 영재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 진단 검사 도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검사 도구는 영재 담당 교사 및 상담교사가 영재들을 진단하고 상담하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는 이론적 배경과 반구조화된 1차 설문을 바탕으로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인문제', '교사와의 관계', '이성친구', '친구관계',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성적 및 학업',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영재성 및 영재교육' 총 13가지의 요인에 103문항들을 개발하였으나, 영재교육전문가 3인과 영재 전공 박사 1인의 내용타당화를 거친 후 영재들에게 개인적 외모나 성격에 대한 문제 문항들은 적합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최종 문항은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영재성 및 영재교육', '이성친구', '친구관계', '진로문제', '학교부적응',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성적 및 학업',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총 11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태진미(2014)의 영재 유형별 고민을 살펴보면 '가족문제', '영재성 관련 문제', '학교성적 및 학업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진로 문제', '본인의 이상한 행동 관련 문제', '대인 및 친구관계 문제', '이성문제', '생활습관 및 생활태도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로 총 10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를 '이성친구'와 '친구관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문제'는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는 반구조화한 설문을 바탕으로 검사를 개발했기 때문에 보다

영재들의 고민이나 상담요구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영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검사 도구는 초/중등 영재들에게 영재 상담을 하기 전 영재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단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영재들의 개인차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요인을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영재 상담 진단 검사 도구는 초등 영재와 중등 영재에게 상담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으로 진단 도구의 하위요인이 초/중등 영재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에서는 '부모님 관계 및 부모와의 갈등' 뿐 아니라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친구에서는 '친구관계'와 '이성친구', 학교에서는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부적응', 학업에서는 '성적 및 학업', '학업과중 및 시간부족' 그밖에 '영재성 및 영재교육', '진로문제', '학원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 및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지적 발달과 정서적 발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영재 상담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본 검사 도구는 영재의 상담 요구 및 문제/갈등 상황만을 탐색하여 개발하였다. 따라서 영재 뿐 아니라 영재교육 지도교사, 영재학부모의 상담 요구를 반영한 교사용이나 영재학부모용 상담 진단도구를 함께 개발하여 진단한다면 영재들의 문제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보다 심층적으로 영재들의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효과 또한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둘째, 영재들에게 이미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예방적 차원에서의 영재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영재 교사나 영재 상담가의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영재들의 검사도구 문항별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영재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및 갈등은 평균 1점에서 2점대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기순, 김영미(2008)의 연구에 의하면, 영재들이 일반학생들보다 행복지수,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학교교육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보고하며 영재들이 일반아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영재들이 일반아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김유미, 2004; 이상희, 2004; 최운재, 2009; 최혜승, 2004; Terman, 1925, Terman & Oden, 1947), 그렇다고 하여 모든 영재들이 문제가 없고 모두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도 대략 5~8%의 영재학생들은 하위변인별로 4점대 이상의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진로문제나 성적 및 학업문제에서는 9~10% 학생들이 평균 4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부분에 문제 혹은 갈등의 상황이 있고 적절한 상담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제나 갈등상황을 겪고 있는 영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갈등상황이 증폭되기 전에 상담적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영재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

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영재들은 우수한 지적 능력을 지니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 뿐 아니라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업, 사회성 등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재들은 치열한 경쟁과 높은 기대감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실제로 영재 중에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감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한다. 진선홍, 양태연, 한기순(2012)의 연구에서도 영재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이나 학업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재교사와 영재교육 기관에서는 정서적으로 고통 받는 영재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영재 상담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재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 교사 및 영재 관련 교육 기관 및 행정 기관에서는 영재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영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영재상담이 영재 판별, 영재 교육과정 등과 기존의 영재 분야와 함께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통합될 수 있도록 영재 상담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2012). 초등과학영재와 수학 영재의 상담 실태 및 상담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숙, 윤여홍(2001). **특수아 상담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김유미(2004).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특성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은주, 김정은, 백성혜(2011).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영재에 대한 고찰. **영재교육연구**, 21(3), 659-682.
- 민경해(2006). 영재자녀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우경(2004). 미성취 영재아의 정의 및 심리적 행동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부모교육연구**, 1(2), 55-75.
- 성희경, 한기순(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따른 개념도. **청소년학연구**, 18(9), 309-336.
- 염애숙(2007).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상담실태와 상담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유형근(2009). 미성취 영재의 상담요구와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등연구**, 2(1), 113-139.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 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1), 79-101.
- 윤연홍(2011). 초등영재학급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상담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희(2004).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승주(2010). 초등 영재의 상담실태 및 상담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주화, 김아영(2005). 학업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5.
- 이지연(2010). 초등영재아동의 지각된 성취압력과 스트레스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아동연구**, 19(3), 265-285.
- 정순이(2010). 영재상담 모형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현남, 김동혁, 고병오(2004). 영재 학급을 위한 사이버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한국정보교육학회**, 8(2), 177-189.
- 지세영(2006). 초등학교 영재아 학부모의 상담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진선홍, 양태연, 한기순(2012).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탐색. **영재교육연구**, 22(3), 779-800.

- 천성문(2009). 영재상담이론. 영재교육담당교원 상담연수 교재. 부산광역시영재 교육진흥원.
- 최윤재(2009). 초등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리더십 기술과 사회성숙도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선(2004). 초등 영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승(2004). 영재아동의 사회성숙도와 또래지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태진미(2014). 초·중등 영재학생들이 지각하는 영재상담 실태 및 요구. **영재와 영재교육**, 13(3), 146-173.
- 한기순, 김영미(2008). 영재들은 행복한가?. **영재교육연구**, 18(3), 519-542.
- 한기순, 신정아(2007). 성취영재와 미성취영재는 어떻게 다른가. **영재교육연구**, 17(1), 27-50.
- 허난설(2009). 영재아의 정서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종관(2006).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상담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1(2), 235-249.
- 홍종관(2009). 영재의 이해와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14, 123-146.
- Colangelo, N. M.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273-284). Boston: Allyn & Bacon.
- Colangelo, N. (2002).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Storrs, C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Colangelo, N., & Assouline, S. G. (2000).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2nd ed.)(pp. 595-607). Amsterdam: Elseiver.
- Holahan, C. K., & Sears, R. R. (1995) *The gifted group in later matur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 Hollingworth, L.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ew York: Macmilan.
- Hollingworth, L. S. (1942). *Children abover 180 IQ Stanford-Binet*. New York: World Book.
- Peterson, J. S. (2006). Peeling off the elitist label: Smart politics. *The Gifted Child Today*, 16(2), 31-33.
- Reid, B. D., & McGuire, M. D. (1995). *Square pegs in round holes-These kids don't fit: High ability students with behavioral problems*.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Silverman, L. K. (1991). Help forth ehidden handicapped. *Highly gifted Children*, 7(2), 10-11.

Silverman, L. K. (1993). 영재상담(이미순 역). 서울: 박학사.

Terman, L. M. (1925). *The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Terman, L. M. & Oden, M. H. (1947). *The gifted child grows up : Twenty-five years' follow-up of a superior group*. Genetics studies of genius, Vol.4.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525-538). Pergamon Press.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11월 20일 / 게재승인 2016년 12월 9일

* 양태연: 인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물리교육을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창의성, 영재교육, 융합교육이다.

* E-mail: coolyy@hanmail.net

* 손지유: 명지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여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인천대학교에서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창의성, 영재교육, 유아교육이다.

* E-mail: amarjh@hanmail.net

* 한기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 대학교에서 영재교육으로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영재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영재교육과 창의성이다.

* E-mail: han@incheon.ac.kr

* 박인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물리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어번대학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영역은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이다.

* E-mail: ihpark@incheon.ac.kr

Abstract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 Tool for The Gifted Children*

Yang, Tae Youn**

Son, Ji Yu***

Han, Ki Soon****

Park, In Ho*****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diagnostic test tool for the gifted children to determine, among various psychological-environmental factors, which specific factors need counseling. The research is conducted among 120 gifted elementary schoolers and 168 gifted middle schoolers, and 103 candidate questions are extracted through semi-structured survey and theoretical contemplation. Based on the candidate questions,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re implemented and total of 46 questions over 11 factors are selected.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s the model fitness of 1419.685 ($df=882$, $p=.00$), $TLI=.911$, $CFI=.924$, $RMSEA=.046$, which is a satisfactory fitness value. Cronbach's α , value of internal consistency, for each sub factor are 0.64 for parents' relationship and conflicts with parents, 0.74 for relationship with siblings, 0.85 for excessive assignments and lack of time, 0.82 for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0.66 for opposite-sex friendships, 0.82 for friendships, 0.86 for future plans, 0.68 for misfitting in school, 0.82 for school classe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0.90 for grades and school work, and 0.85 for stress and resistance regard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suggesting the developed test is a fair and reasonable diagnostic tool for counseling the gifted childre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for psychological-environmental counseling of the gifted elementary/middle schoolers.

Key words: gifted students, counseling for the gifted, counseling diagnosis, counseling need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4

** First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